

## 신목이면서 예전 놀이터 장소의 음나무



**지정번호** 강원-정선-13  
**지정년도** 1982  
**관리기관** 정선  
**수령** 330년  
**수고** 14m  
**흉고둘레** 4,2m



강원도 정선군 화암면  
화암리 894-2  
37° 21' 39.01" N  
128° 46' 40.43" E



줄기에 가시가 많아 엄나무라고도 부르는 보호수(강원-정선-13) 음나무는 작은 마을의 입구(음지와 사길)에 자라고 있다. 음나무 주변은 지방도로와 맞닿아 있고, 밭이 펼쳐져 있으며, 인근에 시골집이 있다. 지방 도로와 마을 길의 좁은 모퉁이에 있기 때문에 철재 보호대(울타리)가 3m 너비로 한정되어 있다. 음나무 아래는 십터의 정자가 아니라 의자와 성황당 집이 있다. 음나무의 나이는 330년으로 추정된다. 나무높이는 14m, 가슴높이둘레는 420cm 정도이다. 나무갓은 너비가 10m 가량이다. 원줄기는 가시가 없으며 높이 2.5m 정도에서 가지가 2갈래로 갈라졌고, 갈라진 줄기는 다시 높이 6m, 9m 정도에서 갈라져 옆으로 퍼져 있다. 옆으로 뻗은 가지가 넓게 자란 것이 특징이다. 줄기는 높이 7m 정도에서 고사한 가지 줄기가 절단되어 총전재 처리가 되어 있다. 그리고 가운데 줄기는 맨 위쪽이 고사하여 절단한 상태로 나무높이가 25m에 이르던 것이 현재 10m 정도 줄어들었다. 전체적으로 생육 상태는 중간 정도이다. 마을에서 공동으로 관리하고 있다. 전승하는 이야기는 신목으로 제를 지내는 것 등이다. 마을 사람들은 음나무를 신성한 성황당의 나무로 여기고 있다. 매년 정초에 마을의 풍년과 액운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사를 지내고 있다. 마을을 지켜주는 신목의 음나무이지만 예전에는 동네 아이들과 처녀들이 단오 때가 되면 옆으로 뻗은 가지에 그네를 매달고 뛰었다. 예전의 음나무 주변은 어린아이들의 놀이터이기도 하였고, 여러 마을 사람들이 만나는 장소의 이정표였다. 한편 음나무 가시가 귀신을 쫓는다 하여 문 위쪽인 외양간 등에 가지를 꽂아 두기도 하였다. 주로 귀신날에 내려와 신발을 훔쳐 간다는 야광귀신을 쫓아내기 위하여 음나무 가지를 걸었다.